

프랑스 영화계 내
성희롱 문제

KOFIC

프랑스 영화계 내 성희롱 문제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 통신원 김민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7 년 2 월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7

Contents

01

영화계 내 성희롱 / 1

02

사례 분석 / 1

03

영화계의 입장 / 2

04

예방 지침 / 2

05

관련 법규 / 3

06

계약 / 3

1. 영화계 내의 성희롱

프랑스에서 “harcèlement sexuel”이라고 불리는 성희롱은 성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harcèlement”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 언급한 성희롱(harcèlement sexuel)이며, 다른 하나는 인신 공격(harcèlement moral)이다. 다른 직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위의 두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사례 분석

영화/시청각물 촬영 현장에서의 성희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 영화 산업 내의 암묵적인 규약이다. 따라서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업계 관련자들의 지탄 또한 받게 된다.

프랑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단 2 건¹으로, 이는 모두 영화 감독 장-클로드 브리소(Jean-Claude Brisseau)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영화계 내의 성희롱 문제는 프랑스 영화계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감독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편이 옳겠다.

장-클로드 브리소(Jean-Claude Brisseau)는 1988 년 칸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프랑스의 유명 감독이자 배우, 제작자, 시나리오작가, 사진 작가이다. 바네사 파라디의 데뷔작인 <하얀 면사포>로 유명한 이 감독은 2005 년과 2007 년 총 2 건의 성희롱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05 년 12 월 15 일, 프랑스의 영화 감독 장-클로드 브리소는 성희롱 문제로 집행유예 1 년, 15,000 유로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처벌을 받은 성희롱은 1999 년부터 2001 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두 명의 여배우 노에미 코셰(Noémie Kocher)와 베로니크 이라(Véronique Hirat)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이 두 배우는 감독의 집과 레스토랑, 영화관 등의 공공 장소에서 에로틱한 상황을 연출해달라는 감독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는데, 감독은 당시 이 두 배우에게 <남자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들>(2002 년 프랑스 개봉)의 주연 배우 자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투자 문제로 해당 영화의 촬영이 여러 번 미뤄지게 되었고, 결국 이 두 배우는 주연 배우 자리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문제는 장-클로드 브리소 감독이 처음부터 이 두 배우에게 주연 배우 자리를 줄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다. 두 여배우는 성희롱과 사기 혐의로 감독을 고소했지만, 사기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정에서 장-클로드 브리소의 변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¹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이 2 건 이외의 다른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15,000 유로는 돈을 거의 못 버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돈이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6 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것으로 또 다른 두 명의 신인 여배우와 관련이 있다. 당시 사건은 2005 년 8 월부터 2007 년 9 월 사이 <남자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들 2>의 촬영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2005 년에 처벌 받은 행위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장-클로드 브리소는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 이외의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같은 해 그는 영화와 동일한 이름(L'ange exterminateur)의 에세이 형식의 책을 출판하여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을 한 바 있다.

3. 영화계의 입장

장-클로드 브리소 관련 사건은 프랑스 영화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2005 년 판결 당시에는 감독을 옹호하는 쪽(배우가 배역을 따내고자 하는 욕심에 부적절한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과 배우를 옹호하는 쪽(감독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여배우를 농락했다고 주장) 두 편으로 갈리기도 했고, 2009 년 르피카로는 “장-클로드 브리소: 법정에서는 처벌받았지만 영화계에서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²를 내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훌륭하며, 그가 여전히 프랑스 영화계의 제작자와 배급자들의 인정을 받는 영화감독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장-클로드 브리소와 한 개인으로서의 장-클로드 브리소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의 사고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 장-클로드 브리소는 여러 개인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사 2015: 노인과 소녀>로 2012 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황금표범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다.

4. 예방 지침

프랑스에서는 성희롱/성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영화계에서만 통용되는 예방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계 내에서 성희롱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harcèlement sexuel dans le milieu professionnel)”의 차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영화계만의 특별한 예방 지침이 없는 이유는 영화를 다른 직종들과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영화/시청각물 분야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성희롱/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보여진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형법/민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² 「Jean-Claude Brisseau: condamné par la justice, mais pas par le cinéma」, <르피카로(Le Figaro)>, 2009 년 4 월 4 일

³ 관련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성희롱의 정의는 “반복적으로 성적 의미를 함축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성폭행(agression sexuelle)”로 취급되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5. 관련 법규

“직장 내 성희롱(harcèlement sexuel dans le milieu professionnel)”은 형법(Code pénal) 222-33 항 (성희롱 관련 처벌), 노동법(Code du travail)의 L1153-1 항부터 L1153-6 항까지 (근로자 보호), L1154-1 항부터 L-1154-2 까지(노사조정법원(Conseil des prud’hommes) 관련)에 의거하여 처벌되며 이 외에 공무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098 년 7 월 13 일 법 제 83-634(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의 6 항, 직장 내 차별과 희롱에 관한 2012 년 11 월 12 일 공문(Circulaire du 12 novembre 2012 relative au harcèlement et à la discrimination au travail)에도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와 민사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은 징역 2 년, 30,000 유로의 벌금이며, 지위를 남용한 것이 인정되었을 시에는 죄가 가중되어 징역 3 년 4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사조정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려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노동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화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

6. 계약

앞서 밝힌 바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성희롱/성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영화계에서만 통용되는 예방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 단체 협약(스태프)과 이 협약의 확대 조항(배우)에는 성희롱/성폭행과 관련된 매우 일반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다.

영화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

2012 년 1 월 9 일에 체결된 영화 제작에 관한 단체 협약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 la production cinématographique)의 Titre 1 공통 조항의 제 2 장(Chapitre II), 4 항과 5 항은 각각 “차별의 금지”와 “남여 평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 부분이 성희롱 문제와 가장 연관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제작에 관한 단체 협약 Titre 1 공통 조항의 제 2 장(Chapitre II) 4 항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정치적 입장, 종교적 믿음, 출신 사회, 인종, 성, 가족 관계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최대 퇴사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5 항은 남여

평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고용, 임금, 교육 등 모든 사항에 있어 남녀 차별이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협약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노사조정법원이 이를 처리하게 된다.

단체 협약(배우)에 명시된 내용

배우의 노동 조건을 명시한 단체 협약의 2013 년 7 월 1 일 변경 조항 상의 확대 조항 항목에는 성희롱과 관련된 특이 사항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의 신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수한 촬영 환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3.8 항에 따르면, 위험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거나, 촬영 자체가 위험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보험을 들 의무가 있다.

배우의 신체 사항을 명시한 6.2 항에 따르면, 계약 기간 동안 배우는 신체나 목숨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해야하며, 건강 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모든 수술(미용적 목적 포함)은 금지된다.

접대 조건을 명시한 6.7 항에 따르면, 촬영 동안 배우가 짐을 보관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편한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장소는 보안이 철저한 장소이거나 열쇠로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소이어야한다.

위의 사항들이 배우 계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 사항으로 이외의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 자료

영화 단체 협약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IDCCArticle.do?sessionId=A9215D8633A4389EB8EBF68C825BC2F3.tpdl14v_3?idArticle=KALIARTI000028053696&cidTexte=KALITEXT000028053648&dateTexte=20130801

단체 협약 배우 관련 항목

http://www.journal-officiel.gouv.fr/publications/bocc/pdf/2013/0034/boc_20130034_0000_0005.pdf

「Le cinéaste Jean-Claude Brisseau condamné pour harcèlement sexuel」, <르몽드(Le Monde)>, 2005년 12월 16일

「Brisseau condamné pour atteinte sexuelle」, <누벨 옵세르바퇴르(Nouvel Observateur)>, 2006년 12월 21일

「Jean-Claude Brisseau, soupçonné de viols, a été entendu comme «témoin assisté」, <리베라시옹(Liberation)>, 2007년 12월 22일

「Jean-Claude Brisseau en garde à vue pour agressions sexuelles」, <리베라시옹(Liberation)>, 2007년 12월 21일

「Jean-Claude Brisseau: condamné par la justice, mais pas par le cinéma」, <르피가로(Le Figaro)>, 2009년 4월 4일

관련 사이트

성희롱 관련 정부 기관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43>